서울무악로타리클럽,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초청 스케이트 강습 봉사주회

서울무악RC(회장 강석건)은 국제로타리 창립 113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월 20일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초청 스케이트 강습 봉사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학생 25명을 초청하여 회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동계 스포츠 체험으로 스케이트 강습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정기 후원과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스케이트 강습,마트 장보기 행사, 수학여행 지원, 발표회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장애아동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봉사

서울남산RC(회장 서상준)은 지난 2월 23일, RI 창립 113주년 기념 창립기념 일주 봉사주회를 영락애니아의집(후암동 소재)에서 실시했다.

2월 23일(금) 11시부터 서상준 회장을 비롯한 회원 19명과 스폰서 로타랙트인 서울남산로타랙트 6명, 숭실남산로타랙트 5명 등 총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아동들의 식사보조를 하고, 장애아동들과 함께 산책 등을 하며 뜻깊은 봉사주회를 가졌다.

영락애니아의 집은 1994년에 설립된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로, 서울남산 로타리클럽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차 특수휠체어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울마포RC, 설맞이 행복 떡국떡 나눔 봉사주간 행사 실천

마포구 80개 경로당, 320곳 불우가정에 1천만원 상당 떡국떡 2,310kg 규모

서울마포로타리클럽(회장 이동주)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RI창립 113주년 기념 봉사주간으로 정하고 일정별로 회원들이 참석 봉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원지역봉사회 회장 이선재 (서울마포RC 초대회장)과 서울마포RC이 공동으로 2018 설날을 맞이하여 마포관내 8개동(염리동, 대흥동, 도화동, 아현동, 합정동, 서강동, 신수동, 용강동)에 있는 80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경로당별로 10kg의 떡국떡을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마포에 살고 계시는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동주민센터의 협조로 320곳을 추천받아 동별 사무소에서 전달해 드렸다. 지원 규모는 떡국떡 2,310kg 금액으로는 950만원 상당으로써 양원지역봉사회의 적극적인 물적 지원이 있었으며 전달봉사에도 이선재 직전 회장 뿐만 아니라 양원지역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마포RC 회원 함께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것을 기원하며 전달 봉사하였습니다.

서울새신라RC, 성남 '안나의집'에서 무료급식 봉사

서울새신라로타리클럽(회장 이관제)은 지난 2월 23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안나의 집' 에서 노숙인과 불우이웃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7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여에 걸쳐 600명에게 따뜻한 저녁식사를 대접해주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마쳤다. 이어 안나의집 김하종 신부에게 2월분 급식후원금(3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새신라로타리클럽의 안나의집 봉사는 지난 2006년부터 12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동시에 매월 급식후원금을 기부하고, 의류도 기증해오고 있다.

서울북악로타리클럽,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급식 봉사

서울북악로타리클럽(회장 김범생)은 지난 2월 20일(화)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급식봉사활동에 성금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북악RC 김범생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봉사하는 곳으로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북악RC에서 처음 방문한 곳이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인연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 강북RC, RI창립113주년 기념 봉사주회로 강북구 번동 경로당 어르신 110명에게 생필품 세트 전달

새강북로타리클럽(회장 이진호)은 2월 28일 수요일 오전에 강북구 번동 3단지 경로당 무료급식 어르신 110명에게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며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자 생필품 세트(치약, 비누, 샴푸)를 준비해 나눠 드렸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며 답례의 말을 건네주시는 어르신들의 따스한 눈빛과 인사 한마디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 봉사활동이 끝난 후 오후 1시부터는 복지관 근처 '쌈향' 샤브샤브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주회를 간단히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봉사활동은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신문인 서울 강북신문과 동북일보, 인터넷 뉴스인 서울 포스트신문 등에 봉사활동 소식을 개재해 주었습니다.

서울도봉RC, 수유동 베드로의 집에서 급식 봉사

서울도봉로타리클럽(회장 박원기)은 지난 2월14일 수유동에 위치한 베드로의집에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무료급식용 식자재를 전달하고 함께 봉사했다.

서울신라RC 창립 30주년 기념주회

서울신라로타리클럽(회장 박성호)은 지난 2월 7일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주회를 개최했다.

서울신라로타리클럽은 서울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지난 1988년 2월 5일 창립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되었으며, 창립 초창기에 신라호텔에서 모임을 갖게 되어서 서울신라로타리클럽으로 이름 지어졌다.

아가페서울RC 창립 22주년 기념주회

아가페서울로타리클럽(회장 임오혁)은 3월 21일(수) 낮 12시, 명동 퍼시픽 호텔 2층 남산홀에서 창립 22주년 기념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주회에는 회원과 내빈 30여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특히 3650지구 장세호 차기총재님께서 연사로 오시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더불어 전창림, 위영금 회원의 신입회원 입회식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봉사하는 클럽으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종로5가 여전도회관 지하1층 종려나무에서 월 2회, 수요일 조찬 정기주회와 그 외 문화주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솔RC 창립 21주년 기념식

서울남솔로타리클럽(회장 이기홍)은 지난 3월 22일(목) 세종호텔에서 클럽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남솔RC 회원들과 손봉락 창립 총재특별대표를 비롯한 원로회원과 신입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클럽 창립 21주년을 자축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울성동RC 창립 38주년 기념 및 일본 아마가사키히가시RC과의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식 개최

기념사업으로 광진 장애인 자립재활센터에 에어컨 기증

서울성동로타리클럽 (회장 이윤택)은 지난 4월6일(금) 리베라호텔 15층 로즈룸에서 창립 38주년 기념 및 일본 아마가사키 히가시 (尼崎東RC) 로타리클럽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식을 자매클럽 회원 12명과 회원 및 가족, 내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8년 1학기 클럽 장학생인 대학생 4명과 서울성동RC에서 후원하고 있는 건대부고 인터랙트 4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사업으로 광진 장애인 자립 재활센터에 에어컨 기증식을 가졌다.

서울성동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자매클럽인 尼崎東 로타리클럽과의 지난 35년간의 꾸준한 공동 봉사 사업으로 교류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5년 창립35주년 기념사업으로 尼崎東 자매클럽과 공동으로 '광진구 수화통역 센타' 인 (社)한국농아인협회에 차량 기증 한데 이어, 자매결연 35주년기념을 맞아 광진구관내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 에어컨 설치 해주는 봉사사업을 통해 한일 양 클럽의 자매결연 35주년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서울성동로타리클럽과 자매클럽인 아마가사키 히가시 로타리클럽은 매 5주년 단위로 자매결연 행사와 기념사업을 전개하며 한일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며 다양한 봉사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새서울로타리클럽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50년전인 1968년 3월 30일, 한양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탄생된 새서울RC 창립 50주년 제2,081회차 주회가 지난 3월 28일 저녁에 퍼시픽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순동 총재님의 축사와 이영호 전총재님, 박수부 차차기총재님. 총재특별대표이신 퍼시픽호텔 이종철 회장님과 최진욱 사무총장님, 변기태 차기사무총장님, 3지역 서창우 대표님과 6지역의 김정균 대표님께서 오셔서 새서울RC의 역사적인 창립50주년을 축하해주셨습니다.

또한 새서울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셨던 안태호전회장님, 새한빛RC를 창립하신 남궁근 전회장님, 서울SRS 합창단 RC에서 활약하시는 김학자 전회장님께서 새서울의 50년을 함께 축하해주시고, 양정월약RC의 민경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과 상담코칭전문가 클럽인 C&C클럽의 김현숙 차기회장과 임미경 부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새서울RC와 길게는 45년부터 30여년 동안 교류를 이어온 해외자매클럽인 일본센다이 북RC, 가고시마RC, 에도가와RC, 대만RC, 홍콩RC의 총 5개 자매클럽에서 자매클럽회장님과 회원 36분이 참석하셔서 성대하고 글로

벌한 50주년창립기념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매클럽분들이 새서울RC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은 그동안 원로 분들께서 자매클럽교류를 정성껏 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매클럽 로타리안들을 만나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로타리안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알 수 있었고 국경을 넘어서

로타리안의 진심어린 사랑과 우정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순동 총재님께서는 축사에서 3650지구에서 3번째로 창립된 새서울RC 故유석진 총재님과 김세경 총재님을 비롯하여 이수광 전회장님, 김유광 전회장님과 같이 지구발전을 위한 로타리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3650지구를 넘어 한국로타리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명문클럽이라고 치하하셨습니다.

새서울 로타리클럽은 사랑의복지재단에서 20여년간 독거노인급식봉사와 돌봄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7-18 회기에는 신개발 봉사프로젝트로 3지역, 6지역 공동봉사사업인 노인주거정서환경개선봉사를 제안하여 마포구일대 126가구의 LED전기공사를 완료하고 3.6지역클럽과 함께 마포구 독거어르신 집수리현장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를 통해 로타리의 슬로건대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이렇게 역사적인 창립50주년을 맞아 새서울로타리클럽은 선배로타리안께서 이어오신 오랜 전통을 존중하고 새세대와의 융합으로 보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명문클럽의 긍지와 전통을 살려 3650지구와 로타리를 빛낼 수 있는 길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글. 새서울RC 회장 이정수

서울신라로타리클럽, 지체부자유자 시설 소망의 집 봉사

'봉사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글. 서울신라RC 전회장 **고정수**

서울신라로타리클럽(회장 박성호)은 오래전부터 하남시에 있는 지체부자유자 시설 소망의 집을 도와주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도 박성호 회장님을 필두로 박윤희 전임회장(지구 사무부총장)께서 특별히 작은 음악회를 기획해 주시어 또 다른 의미의 보람 있는 봉사주회였다.

본회의 김동일 명예회원님의 제안으로 정기적인 봉사주회가 시작된 지 어언 세월이 많이 흘러 최근에는 풍성한 행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출연해 주신 박윤희 전임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예인교수 앙상블과 돌체성악회 그리고 이번에 특별게스트로 추연해 주신 신재용 전임회장님의 절친인 테너 설인권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설인권님은 성악이 비전공이지만 실력이 매우 뛰어나 아마추어 경지를 뛰어 넘어 나로선 부럽기 짝이 없었다.

그 밖에 소망의 집 봉사주회 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주는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는데 항상 거금을 쾌척해 주시는 김충한 회장님은 우리 로타리안의 롤모델이시다.

그들에게 지원되는 우리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넉넉하고 따뜻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지체장애자는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소망의 집에 있는 지체장애자들은 대부분 가족으로 부터

격리된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심지어 성인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성적욕구 분출행위를 하기에 철저히 주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박현숙 원장님에 말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티슈와 세제 그리고 쌀이라고 한다. 쌀은 누구나 먹어야 하는 기본적인 양식이지만 매일 목욕을 시키고 닦아주고 세탁을 하려면 물티슈와 세제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소망의 집 방문이 나로선 감개무량한 일화 두 가지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모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일이다.

첫째는 우연히 박현숙 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그 내용인 즉, 현재 하남시로 시설을 옮겨 지을려고 하니 현지 주민들이 혐오시설 들어오면 안된다고 소환을 했다고 한다.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길래 절대 울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단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당부했다. 그중 하나는 지체부자유들은 일체 바깥출입을 안하기에 피해가 없으며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결국은 모두 장애자가 되니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서너 시간이 지난 후 박 원장님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다. 현지주민들이 좋은 일 하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담을 쌓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다고.

난 그 순간 이건 분명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뭉클함을 느꼈다.

둘째는 오래전에 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난생 처음 탯줄을 갓 끊은 여자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며 목욕봉사를 했는데 그 애가 성장하여 10년 만에 나에게 뽀뽀세례를 해주어 무척 행복했다.

그러나 한편 그동안 간헐적인 경제지원만 하고 방문을 안한 것에 대해 자책감이 앞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가슴 중간에 30센티 정도의 커다란 심장수술 자국이 말해 주듯 겨우 소생하였다는 10살 짜리 "은혜" 라는 성스러운 이름의 그 소녀는 가장 노래를 잘 불러 박수갈채를 제일 많이 받았다. 느끼고 있던 터이지만 소망의 집 박현숙 원장을 비롯 그 곳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천사들임을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었다.

지체부자유들은 거의 정신박약 증세를 포함하고 있기에 그들을 돌본다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

마더 테레사는 '봉사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지척에 있는 불행한 곳을 찾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다. 하느님은 내려다보시며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기고

거리로 나온 들꽃 청소년들의 '품'이 되어 준 서울예지로타리 클럽회원들

글. 서울예지RC 봉사프로젝트 위원장 **강월석**

2월 8일 서울예지로타리클럽의 주회 날, 김서현 회장이 운영하는 숍에 들어서니 환한 튤립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안개꽃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준다.

지난 늦가을 부터 학교 밖, 거리 청소년들을 모아 배움, 돌봄, 주도적인 청소년, 세상과 소통을 모토로 이끌고 있는 기관 '들꽃 청소년세상' 을 탐방하였고, 청소년자립식, 기관장면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지속적으로 봉사하기로 결정하고 기금전달식과 함께 참 봉사의 의미를 교육받는 시간을 마련했다.

점점 회원들의 노령화와 경제활동 여건이 각박해지는 상황에서 로타리 신입회원을 영입하기도, 기존 회원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봉사기금을 마련하기는 더욱 난감한 일임을 우리는 안다.

그리하여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밖에 없는 봉사프로젝트였다. 18세가 되면 그룹 홈을 떠나 자립해야하는 청소년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자는 '품' 기금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여성클럽 예지인들,

'초아의 봉사' 라는 로타리 제1목표에 맞는 본연의 모습으로 도움 받는 이도, 도움을 주는 이도 서로 감동하며 감사기도를 올렸다.

더욱 고마운 것은 호텔식사비를 절약하자며 회장님이 직접 만들어 내놓은 떡국과 약식, 전통적인 김치 등은 추운 겨울밤, 등과 배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다.

대신 절약한 돈으로 야간에 길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을 위해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버스에서 나누는 밥상 위에 고기를 연4회 제공하기로 정하였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며 살아야 할 거리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성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보람 있는 일일까.

로타리는 바로 봉사를 통해서 본연의 모습을 가질 때에 더욱 힘을 발휘함을 체감한 주회였다.

4way-test.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를 크게 복창해본다.

문덕환 전총재, RI2580지구(일본 도쿄) 17-18 지구대회 참석

문덕환 전총재(2011–12, 서울남산RC)가 지난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RI2580지구의 2017–18년도 지구대회에 참석하여, 한일친선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축하인사를 펼쳤다. 또한 지난 2016–17년도에 추진된바 있는 우리 3650지구와 2580지구가 함께 참가한 글로벌 보조금 사업(GG No.1639968)에 대한 감사로 2580지구 스즈키 직전총재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태연 서울아리랑RC 회원,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삼성애니컴' 에서는 매년 '삼성페스티벌' 을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저는 수기 분야에서, 제가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써서, 2016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2018년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뛰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동계올림픽 한국 주최라는 역사적인 순간의 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 15일 강남대로에서 200미터를 뛰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같이 뛰어줄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저의 대학친구인 문세진 양이 저를 도와 같이 뛰었습니다.

글, 서울아리랑RC 김태연

서울튜티앙상블(대표 김지현 서울예장RC 차기회장)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개최

김지현 서울예장RC 차기회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튜티앙상블의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가 지난 4월 14일(토)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주회는 서울튜티앙상블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들과 30년을 추억하고 다가올 30년을 기대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기획됐다.

김동규, 김구미꼬(서울강북 랑코리아 위성클럽) 듀오아임 20주년 토크콘서트 '봄소풍 2018' 개최

지구송리더인 김동규, 김구미꼬(서울강북 랑코리아 위성클럽) 회원이 지난 4월 15일(일) 삼성동 코우스(한국문화의집)에서 듀오아임 20주년 토크콘서트 '제2회 봄소풍 2018' 개최했다.